

제18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0. 2. 1(월), 14:00~18:1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 석 : 총 13명 중 12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 장, 주동표 부의장, 조중열 평의원, 이재호 평의원, 오동석 평의원, 박철균 평의원, 임재수 평의원, 김용호 평의원, 임원형 평의원, 이해진 평의원, 김관균 평의원, 박상호 평의원(이상 12명)
- 불참 평의원 : 박윤규 평의원(이상 1명)

4. 회의안건

- 심의사항: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자문사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
 - 2009학년도 의료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2010학년도 의료원 자금예산(안)
 -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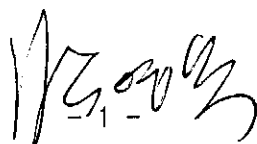
5. 개회선언

간사 김근태 : 대학평의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간사 김근태입니다. 오늘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을 먼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출은 규정에 의해서 호선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교수 분들이나 교직원 분들 중 유임이 되신 분이 안계시고 어떻게 보면 제3자인 동문회와 외부에 계신 분들이 유임되셨는데 학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교수나 교직원이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 교수회 의장을 맡고 계신 박영무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박영무 : 임시의장을 맡아달라는 말씀입니까? 의장 선출 호선을 한 겁니까?

간사 김근태 : 임시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의장 박영무 : 임시의장으로서 의장선출 하는 것을 저의 임무라 생각하겠습니다. 의장 선출 방법은 평의원회 규정에 의해 호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해진 평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영무 교수님께서 의장으로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청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는 연속성이 없을까봐 조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총장님실에서 박영무 평의원님께서 1년 치 평의원회 회의록을 열심히 읽으셨다 길래 전혀 불안한 감이 없고 해서, 박영무 평의원님께서 의장을 맡으셔서 고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시의장 박영무 : 재청이 있었고 삼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평의원 주동표 : 박수를 치면 어떻습니까?

임시의장 박영무 : 혹시 다른 의견이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만장일치로 의장이 선출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일동 : (박수)

간사 김근태 : 의장이 선출되었기에 부의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의장 박영무 : 첫째 안전으로 부의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의견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사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근태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33조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으로 부의장을 선출하시면 됩니다.

의장 박영무 : 지난 기 부의장이 이원희 교수님이셨습니까?

간사 김근태 :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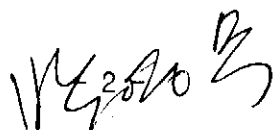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박상호 평의원님께서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부드럽게 진행이 될까요?

평의원 박상호 :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교수님들 중에서 추천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평의원 오동석 : 평의원회 구성을 보면 교원이 5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의장의 역할이 의장을 보조하면서 유고시에

< 간서명 란 >

의 장



직무를 대리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제가 교수로서 이렇게 추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주동표 교수님을 부의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영무 : 주동표 평의원은 직전까지 교수회 부의장을 맡으셔서 학교 제반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평의원 일동 :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무 : 삼청 있습니까?

평의원 주동표 : 교수회에서 의장, 부의장을 다 맡으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13분 평의원 중에서 4분이 남고 9분이 바뀐 것 같은데, 지난 기에 평의원을 맡으셨던 분 중에서 부의장을 맡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평의원 박상호 : 학교 내의 문제인데 외부에서는 학교의 문제를 잘 모르고, 의장님과 서로 긴밀하게 연락되고 하여야 하므로 교수님들 중에서 맡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주동표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5인, 교직원이 2인 계신데, 부의장은 1인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팀 진성호 : 네,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33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한 분으로 정해져 있다면, 아무래도 박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주동표 교수님의 발언도 있으셨고 재청, 삼청까지 있었지만 의견만 있고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동표 교수님을 부의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그전에도 교수님께서 의장, 부의장을 맡으셔서 회의가 상당히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학내 교수님끼리 의장, 부의장을 맡는 게 의사소통도 수월하실 것 같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게 평의원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주동표 평의원의 부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특별히 반대하는 분이 안 계시면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일동 : (박수)

의장 박영무 : 구체적인 안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씀으로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짧은 시간동안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학교 전체 의사결정 구조로 본다면 재단

< 간서명 란 >

의 장

이사회가 있고 교무회의가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심의 혹은 자문기구로 대학평의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무회의는 행정 부서 차원에서 조율된 의견을 심의·의결 하는 것입니다. 평의회는 교무위원 보다도 더 폭넓은 학교발전이라든가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총장님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생각합니다. 과거 4년 전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대학에 법적인 평의회 제도가 생겼고, 선진 외국대학을 보면 대학평의회가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왔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도 이제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해왔던 마음들을 잘 이어받아서 재단과 학교와 학생과 직원들을 다 포함해서 아주대학교의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의장을 맡게 되었는데 평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일동 : (박수)

의장 박영무 : 먼저 오늘 자문사항이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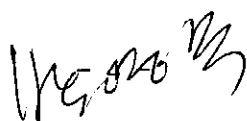
간사 김근태 : 오늘 평의회 상정될 안건은 자문사항과 심의사항 두 가지입니다. 자문사항으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2009학년도 의료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2010학년도 의료원 자금예산(안),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등 총 4가지 자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학칙에 산업대학원 '물류경영공학과' 신설, 보건대학원 '구강위생관리' 전공 신설, 인문대학 내 '문화콘텐츠학전공' 신설 및 '문화학(연계전공)' 폐지, 연계전공을 단과대학에서 분리하여 별도 표기하는 네 가지 안건이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문사항부터 진행이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원 기조실에서 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위해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본교 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순서에 따라서 의료원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학교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산자문을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지난주 화, 수요일이었습니다. 중간에 보충자료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보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다음부터는 그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면 합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좋은 자

< 간서명 란 >

의 장



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결산 준비하실 땐 고생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영무 : 예산 자문내용이 1주일 전에 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평의원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보충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요청은 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안되어 예산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주전에는 와야 충분한 검토가 되고 보충자료 검토해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1주일 전에 자료가 오면 예산자문이 어려워질 수 있죠. 학교 일정상 내일 교무회의가 있죠? 그것은 오늘 당연히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충실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지금 평의원회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주시고 보고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최종 결과치의 숫자만 보게 되는데, 과연 여기 올라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이 있었는지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의장 박영무 : 2009년도 의료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대해 프로세스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저희가 금년에 추경과 예산 작업을 동시에 했습니다. 금년에 조금 늦어진 것은 의료원의 인건비 때문이며 또한 직원정원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직원정원을 앞으로 늘리긴 늘려야 하는데, 법인과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였고 의료원의 보직, 노동조합, 법인협의 등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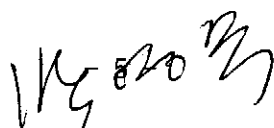
평의원 김관균 : 제가 여쭙본 것은 중간에 어떠한 검증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저희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해서는 감사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달에 예산에 대하여 법인에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김관균 평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의료원 것만이 아니고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기에 때문에 기초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기획팀에서 어떻게 해서 자료가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김관균 : 맞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한 진행사항을 거쳐서 어떠한 검증을 거쳤고 그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모든 게 다 확인되고 여기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영무 : 기획처장님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기획처장님 오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의료원 혹은 학교 경영방침 그리고 편성의 기본 방향이 있잖아요. 올해는 의료원이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은 이 경영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계획을 적어냈을 텐데, 경영방침이 달성됐다 달성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얘기가 없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집행을 해서 2009년도에 의료원 경영방침과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다 혹은 안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걸 다시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의 연결이 없이 얼마 더 집행했느냐 더 집행 못했느냐 하는 숫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전에 대한 달성과 악도 안되고 숫자 파악이 힘든 거죠.

의장 박영무 :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목표-계획-재정간 일관성이 없어요.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진 평의원의 지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계획에는 재정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집행할 수 있고, 돈을 썼을 때는 어떠한 계획과 비전에 썼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게 같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기획처장님께서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문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말씀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의장 박영무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의료원 조정실장님께서 의료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보고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최종한 말씀이지만 대학 본부에서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기획팀장이 보고 하는 건 어떨까요?

의장 박영무 :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네, 알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기획팀장님, 여기 추경예산이라고 한 게 추경예산은 학년도가 종료되고 집행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간사 김근태 : 예산 관련은 기획팀 소관이 아니어서 오늘 예산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다.

의장 박영무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예산(안) 보고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심의사항 학칙개정(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6. 심의사항: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간사 김근태 : 산업대학원의 물류경영공학과 전공 신설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 별표4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왜 신설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보조 자료가 전혀 없나요? 서류가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검토하죠?

기획처장 김민구 : 현재 특수대학원의 학과 신설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은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학칙 등에 반영)만을 교무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과 신설 등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진행해 가야 하는 특성을 반영한 의사결정과정의 운영이라 봅니다. 학과 신설과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관련자료는 구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학칙관련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평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따라 붙어야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심의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처장 김민구 : 교무회의도 평의원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신설이 된 게 아니라 신설 하겠다는 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맞습니다. 교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학칙개정은 교무회의 끝나고 평의원회로 올라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기획처장님, 작년 하반기에 금융경영공학과 신설 건이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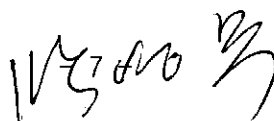
기획처장 김민구 : 금융공학과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게 이미 학생모집 공고까지 난 상태에서 심의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미 결정된 것을 심의안건으로 올리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의안건이나 보고사항이나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려면 심의 자료가 있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심의내용이 아닙니까?

부의장 주동표 : 학칙개정이니까 심의안건이죠.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박영무 :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대학원 물류경영공학과, 보건대학원 구강위생관리 전공은 이미 교무회의 통과하여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될 겁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아직 신설된 게 아닙니다.

의장 박영무 : 인문대학내 문화콘텐츠학전공 신설 및 문화학(연계전공) 폐지는 2009.4.21 교무회의 심의의결이라고 적혀있으니 이진 의결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기획처장 김민구 : 교무회의에서 의결되었어도 최종 학칙으로 공포하기 위해서 평의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의장 박영무 : 신설되면 다음 학기부터 진행되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미 모집공고하여 학생선발을 진행했을 것으로 압니다.(해당 대학원에 확인결과 : 산업대학원에서는 2010-1학기에 8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으나 물류경영공학과로 학생을 모집한 적이 없으며, 향후 물류경영공학과가 신설될 경우 산업시스템공학과 로지스틱전공 등의 학생들을 물류경영공학과로 전과 시킬 예정임)

의장 박영무 : 산업대학원 2010-1학기 모집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설이 안된 상태에서 학생선발은 있을수 없고 빨라야 다음 학기에 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평의회를 거쳐 학칙에 반영이 된 후에 학생선발이 진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교무회의 학칙 통과 후, 모집일정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정하지요. 산업대학원 물류경영공학과와 보건대학원 구강위생관리 전공은 다음 학기부터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이번 학기에 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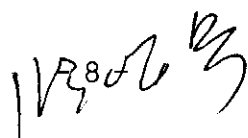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만약 선발했다면 시정하도록 하고, 신설에 대해 차기 평의회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번에는 처리하고 다음부터는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의회를 거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현재 심의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없는 상태이고 처리절차도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여짐으로 이번 18차 대학평의회에서는 심의 통

< 간서명 란 >

의 장



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고, 제19차 대학평의원회에서 다시 상정,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대학원, 보건대학원 및 인문대학 심의 전 모두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계전공을 단과대학에서 분리하여 별도표기' 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연계전공이라는 것은 단과대학을 초월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과대학 밑에 두는 건 합리적인지 않다 하여 이것을 분리하여 별도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특수대학원의 학과나 전공 신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입시에 맞춰서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되어서 실제 특수대학원의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보다는 규정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는 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평의원 임재수 : 학사일정상 진행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교무회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진행된 자료를 보여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자료를 붙여주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교무회의에도 관련 자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무회의에는 자료를 붙여 상정하고 평의원회에는 자료를 붙이지 않고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 같은 자료와 내용으로 상정됩니다. 다음부터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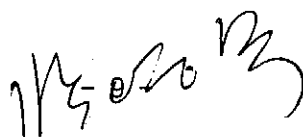
평의원 박상호 : 보충자료는 다음번에 보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급하시더라도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서 평의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사일정상 급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2009.4.21에 의결된 사항조차도 그동안 평의원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거는 조금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전공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정원조정 그런 것을 가지고 의결을 했고 학칙개정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부의장 주동표 :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십분 이해가 되는데 관행이었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은 고쳐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기왕에 지나간 것까지는 평의원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안전 대부분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교무회의에서는 인준해주는 절차로 보기 때문에 상세한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원위원회나 특수대학원 위원회는 학칙에 명시된 기구로 해당 대학원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어서 독립운영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쳐서 교무회의에 올라오는 안전은 심각하게 다루거나 토론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심의를 하려면 자료가 첨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박영무 : 그동안 여러 가지 학교의 재량이 너무 풍부해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 사실 그동안 이러한 지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사항은 여러 부족한 면이 많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평의원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되고 산업대학원, 보건대학원, 인문대학, 연계전공 진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심의자료를 첨부해서 19차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면 그때 일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의료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본교 예산(안)을 먼저 자문 하시면 어떤지요?

7. 자문사항 :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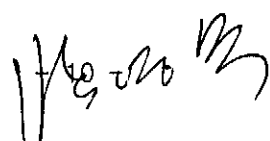
■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및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자문

의장 박영무 : 그럼 본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 관하여 먼저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추경을 먼저하고 본예산을 하는 게 순서라서, 먼저 추경에 대해

< 간서명 란 >

의 장



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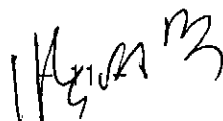
평의원 김관균 : 지금 예산(안) 자료에는 최종 결과치 숫자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과 중간에 변동과정을 설명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2010학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에 미리 예산편성지침을 설명합니다. 11월 5일에 전체 부서 대상으로 예산편성지침 설명회를 하고, 12월 말까지 해당부서로부터 예산편성 요구(안)을 받습니다. 요구(안)을 가지고 12월부터 1월 초까지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예산편성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팀은 주로 예산을 조정. 삭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20일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학생회와 등록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수 있는 건 수렴하고, 7차 등록금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일곱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도 고쳐야하는데 못 고치고 테니스장 보수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6차 회의 때 3.3%까지 줄였습니다. 학생측에서는 2.4%를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등록금을 합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에서 깎을 수 있을 게 없었지만 일부 예비비도 줄여보고 해서 2.9%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생측에서는 여전히 2.4%로 고수해서 더 이상 저희가 합의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1월 20일까지 얘기고 그 이후에 총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평의원회 자문을 받아 교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총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처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줄일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줄이면 학교가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학교가 판단을 합니다만 총장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합의를 해보자 하셔서, 학교장의 의지가 강하셔서 학생들이 제시한 2.4%를 수용해보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인건비를 줄이고 예비비를 줄여서 2.4%까지 맞추는 쪽으로 하자, 합의는 안 되었지만 학생들이 제시한 2.4%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문을 하게되면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장 박영무 : 지금부터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및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에 대하여 자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처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가 오늘 자문을 구할 사항은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및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입니다. 우선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수입
168,833,819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지출
168,833,819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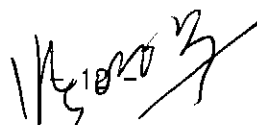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임원형 : 저는 2009학년도 총학생회 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등록금 협의회에 참가했는데, 그 때 기금 부분이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2009학년도 본예산 편성시 등록금 및 인건비를 동결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적게 편성했었는데 오늘 2009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서 적립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9학년도 본예산과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원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면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만 2009학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책임운영부서 기금 7억원 정도만 편성되었습니다. 2009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적립하는 대부분의 발전기금은 특수대학원의 적립금으로 특수대학원의 운영이익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외 장학기금 및 연구기금 적립이 있습니다. 연구기금은 다시 교수들에게 연구비로 사용하게 되거나 장비를 구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입대응 지출 반영 및 건축운영으로 인하여 본부도 건축기금을 포함하여 23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립대학 회계특성상 건물 감가상각이 직접 없고 건축기금으로 적립하게 하고 있기에 일정금액의 건축기금적립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본부가 적립한 금액이 23억원인 반면에 기금인출하여 사용한 금액도 100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본부기금 23

< 간서명 란 >

의 장



역원은 전체 기금적립 대비 상당히 낮은 비율로 실제로 2011학년도에 종합관 진금을 지급하고 나면, 본부의 기금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꼬리표가 달려있는 장학, 퇴직, 연구기금 및 책임운영부서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본부에서 직접 사용이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연구학생경비 주요 증감요인에서 많은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7억원에서 기금적립이 100억원으로 9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 두 부분에서 균형을 좀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연구학생경비가 줄어들면서 기금부분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특수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기금부분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면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등록금수입에 있어서 학부의 경우 정원을 채웁니다. 반면 일반대학원은 특수대학원과 정원 조정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일반대학원은 정원이 남고 특수대학원은 정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법무대학원 등에서 수입이 줄었고, 특수대학원들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평생교육원 쪽으로 수입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수입, 지출을 보고 본교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있다고 생각되고,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고서상 총괄표 항목과 뒤의 세부항목에 대해 계정 순서를 맞춰주면 보기가 훨씬 편할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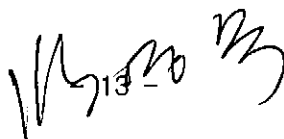
기획처장 김민구 :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학부 등록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른 재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차 지적했지만, 법인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이번 토지 매입비 48억원 중 의료원에서 1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상에서 재단전입금은 총 11억원 정도입니다.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행사비, 장학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인에서도 16억원을 실제로 부담한 것인지와 교비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합법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재단이 설립시 땅을 사서 학교

< 간서명 란 >

의 장



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추후에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더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 점에 대해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난 이사회회의록을 검토해보면 법인에 기금이 410억원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부담금을 100% 지원하고 있지도 않으며, 학교 토지 매입도 전액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알고 있기로 법인 수입원이 많지 않습니다. 410억원 기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으로 법인운영 및 교비 전입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율을 고려할 때 이자수입만으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금을 줄여가면서까지 지원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1년만 지원하고 말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토지 매입비 48억원 대한 실제 재원 부담이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이 해야 할 재정 부분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토지매입에 있어서 저희도 법인에서 48억원을 모두 부담해서 토지를 구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인, 학교, 병원이 1/3씩 부담하여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매입관련 법인전입금은 2007학년도에 6억 6백만원 및 2009학년도에 9억9천4백만원으로 총 16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 건 이외에 2007학년도에 학교와 병원에서 각 1/2씩 부담하여 34억여원의 교내 공유지를 구입하였는데, 그 시점에 법인에서 지원한 6억원을 2009학년도에 땅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알려드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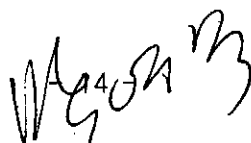
평의원 김관균 : 자세한 숫자를 다 알기는 어렵지만,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입 지출 부분에서 중요하게 학교에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두·세 가지 항목을 간추려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추경에서 그런 세부사항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예산을 가지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평의원 조중열 : 기금이 굉장히 큰 액수가 들고 나는데, 몇 월에 기금이 들

< 간서명 란 >

의 장



고 나는지에 대한 기금 내역을 명시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몇 년 전에 교수와 소송에서 패소한 것 같은데 언제였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기금 사용 예측 일자는 앞으로 표기하겠습니다. 5월에 있을 2009학년도 결산 평의회에서 기금에 대해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재작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평의원 오동석 : 추가경정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고 2월 한 달 이내에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2월 한 달 동안 급하게 집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을 대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의 차를 덜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적절한 지적입니다. 추경을 과거에는 두 세 차례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추경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마지막 추경을 하는 경우는 수입증가로 인한 지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이미 집행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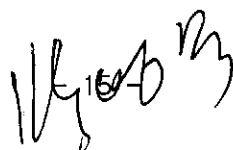
예산팀장 조정숙 : 시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우선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항목의 목내에서는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전용 및 기 실현된 수입증가 부분에 대한 조정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지역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도서구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학생, 교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0학년도 예산에서도 2009학년도 감소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갈수록 도서구입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좋은 지적입니다. 도서구입비를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2009학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 환율이 상승한 상황이어서 높게 편성했다가 줄어드는 점도 있고, 도서관의 도서구입에 있어 철저한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도서구입비가 감소된 점도 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은 있었으나 진도율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판단으로는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과도 도서구입비 집행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다. 동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적은 예산 안에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더 이상 질문이나 자문 내용이 없으시면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자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수입 167,774,479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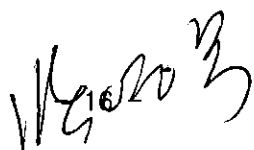
-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지출 167,774,479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평의원 김용호 : 제가 등록금 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 등록금 협의회 진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화장실 공사, 테니스장 보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등록금이 높아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학우의 사정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 사업에 대한 삭감을 요청한 것이지 그냥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5차 회의까지 등록금 인상률 3.9%, 6차에서는 절대 2.9%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등록금 인상률이 2.4%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등록금 인상률이 2.4%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동결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상의 숫자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질적인 측면과 발전에 대한 문제는 남을 것입니다. 등록금 협의 당시 인상률 3.3%가 최선이었고, 숫자로 맞추자면 2.9%까지는 낮춰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과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총장님께서 학생들이 제안한 인상률에 맞출 수 있도록 줄여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인상률을 기존 3.3%에서 2.4%로 낮춘 것 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등록금 인상률을 2.4%로 낮춤에 따라 지출예산을 맞추기 위해 올해 인건비도 총 2.4% 인상입니다. 이는 자연승급분을 제외하면 0.7% 정도입니다. 등록금 인상률을 줄이면 등록금 총액이 줄어들기에 장학금 및 학비감면 금액도 자연 감소합니다. 이와 함께, 예비비도 감소시켰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장학금, 예비비를 감소시켜서 등록금 인상률 2.4%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장 박영무 :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조중열 : 구매, 건설 등에 대해 집행되는 액수가 상당히 큼니다. 웬만한 대기업의 수준인데, 일반 기업은 내부적으로 견제하는 감사실의 기능이 있는데, 본교에는 감사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의 존재가 있다고 하면 비용지출의 효용이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좋은 의견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감사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의 내부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연 1회 기획처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과 팀장을 위주로 모든 부서는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시스템을 2009학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팀이 신설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학부 계절학기 수강료가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학점당 85,000원으로 인상된 후, 다시 2010학년도에 10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부 계절학기 수입이 약 1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인상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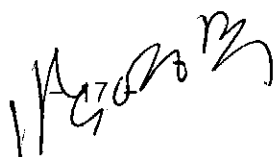
기획처장 김민구 : 계절학기에 대한 여러 전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에서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에 비해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이 적은 계절학기를 악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본교는 계절학기를 정상적인 학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학기 개설을 하는 것은 정규학기 개설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왜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에 비해 적은 금액을 내고 수강하려고 합니까? 단계적으로 거쳐서 계절학기 수강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싸다고 하는게 타대학 대비 싸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꼭 그렇지 않습니다. 타대학과의 비교가 아니라 정규학과와 비교

< 간서명 란 >

의 장



할 때 계절학기 수강료가 싸다는 말입니다. 타대학과 비교하더라도 평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경상비 전입금의 액수는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하고 2008학년도에 4억원 정도, 2009학년도에 토지매입비용을 빼면 1~2억원 정도, 2010학년도에는 10억원 정도인데 경상비 전입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경상비는 행사비, 장학금 등의 성격입니다. 저희는 법정전입금을 늘려달라고 매번 요청하지만, 재단 측에서 경상비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의 의지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에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장학금, 행사지원금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의장 박영무 : 법정부담전입금은 꼬리표를 달아서 보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네, 법정부담금전입금은 경상비 전입금과 별도로 정해져있는 계정항목입니다. 이에 그 항목에 따라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행사비는 어떤 내역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학생회 축제비, 총동문회 행사지원비, 산하기관 축구대회 등입니다.

의장 박영무 : 꼭 필요한 곳에 전입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써도 될 행사비가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해달라고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십시오. 3년 동안 지급되지 않은 법정전입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그로 인해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등록금 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대우 사태 이후 법정전입금이 적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대를 포함하지 않고 본교만 감안할 경우 평균은 약 50% 정도입니다.


의장 박영무 : 그것이 등록금 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보면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등록금을 세이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학교발전에 장기적인 투자로 활용했을 것입니다. 약 3년간 30-40억원 정도입니다.

평의원 김용호 : 법정전입금이 100% 전입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등록금 인상률 2.4%는 상쇄되지 않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 가정하에 등록금을 동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들어오지 않은 돈에 대한 가정이나 추측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를 통해 재단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은 평의원회의 자문이고, 대학발전계획이 심의사항입니다.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재단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재단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평의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재단에 요구하는 것이 방법이 되도록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의장 박영무 : 최소한의 의무인 법정전입금을 100% 채워줘야 합니다.

평의원 임원형 : 비싼 등록금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공감하실 것인데요, 전입금이 들어와도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고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건물을 짓는 부분 등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대표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우들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한 학교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정책 방향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해진 : 동문 대표로서 말씀드리자면, 아주대가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특화된 대학이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평의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0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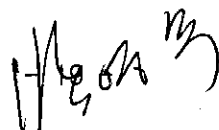
■ 2009학년도 의료원 추가경정(병원 제1차, 교비 제1차) 예산(안) 및 2010학년도 의료원(병원, 교비) 예산(안) 자문

의장 박영무 : 2009학년도 의료원 추가경정(안)을 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의료원은 병원과 교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009학년도 의료원(제1차, 교비 제1차)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2009학년도 병원회계 추경예산(안) 수입 및 지출
370,378,0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2009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수입 및 지출
54,710,0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박영무 : 2009학년도 의료원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김관균 :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임대료사업 수입 증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는 지하 매점운영처럼 병원에서 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임대료 수입은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법인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임대료 수입은 병원에서 관리하여 법인에 진출하고, 법인에서 교비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임대수입은 별도의 수익사업입니다. 임대 수입을 구분하여 세무 및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병원은 비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세법상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병원회계에서 합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의 전체적인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병원발전이나 목표와 어떤 연계를 가지고 편성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2009년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임금인상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3% 인상한 것과 장비 및 건축비 약 350억 규모의 웰빙센터 신축입니다. 의료원에서는 매년 의료계 동향과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수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안)은 약 7%의 성장을 목표로 편성하였으며, 그 수입을 토대로 기관별 요구사항을 심의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임대 수입은 전액이 법인으로 진출되어 교비로 전입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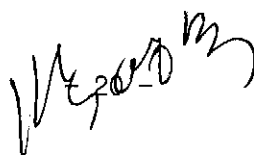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올해는 전액이 진출되었다가 전입됩니다.

의장 박영무 : 임대 수입의 진출, 전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설립 때부터 이루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2006년부터 임대수입을 진출, 전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2009년 임대사업 수입은 42.8억인데, 법인전출, 전입금은 40.1억입니다. 이 차액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40.1억은 임대 사업의 계약주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 법인전출 및 전입을 통해 운영되고, 그 외 일부 약 2.7억원은 계약주체가 의료원으로 되어 있어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병원의 건축기금 적립은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 건축기금으로 적립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법인세법상 절세 측면에서 법인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웰빙센터 건축기금은 매년 65억-7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으로 자원 충당하며, 2008년 70억, 2009년 65억, 2010년 65억을 전출하고, 2009년에 36억, 2010년에 137억을 법인에서 전입 받습니다. 차액 27억은 2010년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건축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은 들어오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이자수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추경예산(안) 23페이지 기타연구비 5.6억은 교내연구비와 구분되는 것입니까.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기타 연구비는 O.H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신입교원연구비 1.8억, O.H과제연구비 0.8억, O.H 행정지원 연구비 0.9억, 전년도분 연구비를 2009년에 집행분 등 2.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O.H재원은 수입에서 구분을 하되, 지출은 교내연구비에 포함시키면 지표개선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O.H재원 연구비를 교내연구비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수도상사에서 매년 기부하는 발전기금은 어디에서 관리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수도상사에서는 본교 교비회계로 기부하고, 본교에서 의료원으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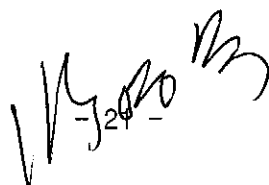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수도상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일종의 재료 도매상입니다.

의장 박영무 : 수도상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가능합니까? 시정되어야 할 문제는 없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수도상사는 납품업체로서 자료를 받을수 있으며, 의료수가 및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운영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박영무 : 수도상사의 운영에 있어, 점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2010학년도 의료원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2010학년도 의료원 본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0학년도 병원회계 예산(안) 수입 및 지출
396,658,0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201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수입 및 지출
56,238,0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박영무 : 설명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질의해주세요.

평의원 이재호 : 웰빙센터와 실험동물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연구학생경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목상으로 학생경비는 12.2%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학생경비에 포함된 것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험동물센터 신축관련 소모품 비용입니다. 이것이 학생경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실험동물센터 신축관련 소모품은 실험실습비 계정에 포함되며, 이는 의과대학 학생 실험뿐만 아니라 OSCE(가상진료실험도구) 실험을 포함하며, 이들은 실험실습비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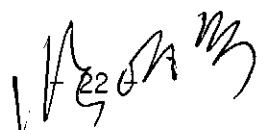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임재수 의원님은 질문 없으십니까?

평의원 임재수 : 의료수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7% 성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이 잘 만들어지면 병원이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홍보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은 수입창출기관으로 홍보가 중요한데, 외부홍보 예산을 늘려 홍보에 이바지 하였으면 합니다. 적정하지 못한 의료수가에 비해 비교적 예산편성은 무난한 듯 합니다.

평의원 박철균 :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의료원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및 간호대를 가지고 있고, 향후 약학대학이 설립이 되면 더욱더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교에서는 의

< 간서명 란 >

의 장



부 재원 충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원에서 학교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의료원은 매년 70-80억원의 리스장비차입 등으로 약 430억원의 고정부채가 있으며, 매년 130-150억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을 보더라도 현재까지 마이너스입니다. 병원이 없었을 때 아주대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료원도 수입창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의원님 말씀대로 의료원이 잘 되어 아주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추경예산이 마지막 예산 편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종플루 진료소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예기치 못했던 일로 예비비에서 차감해야 하지 않나요? 예비비에서 차감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본예산을 편성한다면 실질적으로 관리비 증액이 현재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신종플루 진료소의 경우 예비비, 관리비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2010년도 예산이 달라집니다. 행정부서에서 예산 요구는 많은 반면, 예산부서에서는 관리비를 절감하여 수입으로 남기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듯 합니다.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추경예산은 거의 기말에 하고 있는데, 사실 추경이란 것은 사업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은 정산차원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 이론과 실재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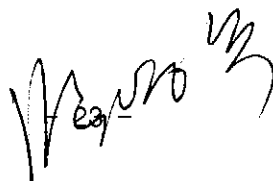
평의원 김관균 : 추경예산이라 함은 추경사유가 발생시마다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최대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운영상 기말에 1번의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말 추경과 5월 결산과의 큰 갭이 없어 예산 운영이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에 학교, 법인, 의료원이 모여서 추경 예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의료원이 개원한지 2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개원 당시 의료원은 지역적 위치, 깨끗한 이미지, 드라마 출연 등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에 큰 병원도 건립된다고 하는데,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향후 10년 계획과 그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저희는 외형상 전국 6위입니다. 그렇다고 경쟁력이 6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94년 개원 당시와는 건물, 장비 등 경쟁력이 다릅니다. 차별화, 전문화, 새로운 것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여 10대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구증가 추세이고, 위기는 닥쳐오지만 보직자들이 교수들을 설득시켜 운영을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서 94년 개원 때처럼 열심히 하여야 20-30년 후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94년 개원 당시 많은 부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심히 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병원이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2병원을 건립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많은 교수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재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꿈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계수상에 문제나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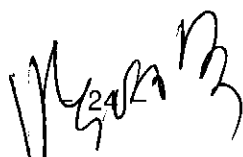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추가로 자료 첨부하여 다음 차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교수님께서 오늘 이사회에서 있었던 차기 총장선임 전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하고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보고 말씀으로는 오늘 이사회가 있었고, 차기 총장 후보로 3분이 등록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 부총장 박종구, 의료원장 박기현,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이수훈 등 총 3분이 후보자가 되셨고 아주자동차 대학의 총장이 차기 총장으로 선임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8대 학생회와 양 노조, 교수회가 같이 좋은 총장 모시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재단 사무실로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법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았고 1월12일에 열흘 공고하고 이를 접수 받고 3분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교수님들이 이것은 너무 졸속적이다. 구성원의 의견이 너무 반영이 안 된다는 측면, 그 중에 한분 후보자는 봄부터 문제가 있었던 점 등 대략 3가지 이유로 차기 총장 선출 프로세스를 중단하기를 요청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오늘 이사회 결정 내용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있고,

< 간서명 란 >

의 장



교무회의가 있고, 평의회가 있는데 차기 총장 뿐만아니라 전총장, 전전총장도 그렇고 총장선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번번히 잡음이 많고 소란스럽습니다. 적어도 총장선출제도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그 제도를 설립하는데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게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물론 법적인 권한은 재단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회에서는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고 최소한 앞으로는 총장 선임에 대한 절차를 완비해서 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결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을 보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2차 심의를 하고 재단에 제출하면 최종결정은 재단에서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총장 선임에 대한 절차를 구체(안)으로 만들어서 총장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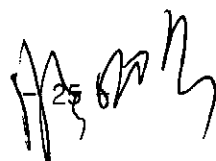
평의원 김관균 : 대학발전 위해서는 재단도 따라줘야 하고, 교수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학생회도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무언가 큰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아마도 재단이겠죠. 지난번 평의회부터 계속해서 재단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많이 문제 삼아왔습니다. 평의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재단쪽에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재단에 여러가지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장님 선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재단에서 얼마만큼 저희 의견을 수용할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재단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권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무 : 학교는 일반 회사와 달라서 중요한 구성단체인 교수회, 노조, 학생회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총장 선임 되었을 때 총장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 없이 그렇게 선정된 총장이 과연 학교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재단으로봐서도 학교를 진정 아낀다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수렴해서 평의회 권고(안)으로 재단에 전달하겠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이번에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 선출 진행과정과 교수회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면 재단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면이었습니다. 총동문회장님과 얘기했을때도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

< 간서명 란 >

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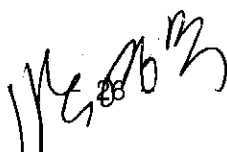
하시고요. 그러한 점에서 재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사태에서 교수회와 재단과의 분쟁 속에서 이야기가 잘 안통하는 점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저도 의장님하고 평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학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대학이 몇 년 전과 같이 분규대학 같등 있는 대학으로 외부에 비춰지는 상황은 안 되다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개선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대학이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대학이 문제가 있는 대학 아니냐, 분규가 있는 대학 아니냐, 같등을 많이 안고 있는 대학 아니냐는 식으로 비춰지는 행동만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과거 회의록을 읽어봐도 항상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신데,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있구나하는 인식을 하게 되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수회가 문제제기를 지난 3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문제제기의 방식은 이전과 비교해보면 대단히 온건한 방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시 제대로 문제제기의 심각성이 전달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측면도 전혀 없다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야 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온건한 문제제기라 할지라도 많은 교수들이 혹은 교수를 대표하는 기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무게있게 받아들인다면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는 아무런 판단착오가 없다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 재단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게 되는 상황이 참 곤혹스럽지만 아무래도 재단의 태도 문제랄까 이런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까합니다. 그런 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논문 써야 하고 proposal 써서 연구비 따와야 하고 학생들 가르쳐야 하는 게 사실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인데 교수들이 왜 1년 내내 그걸 제대로 못할 만큼 이런 식으로

< 간서명 란 >

의 장



일이 전개되는 것은 어느 교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선 총체적으로 유감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재단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용호 평의원이나 박철균 평의원의 뜻은 재단이 한 일이 잘했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닌 줄로 압니다. 앞으로 총장선임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액션들이 외부에 알려져서 학교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지요? 그러한 의견도 참조하여 (안)을 만들어서 재단에 건의안을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아까 말씀 나온건 총장에 관한 건데요 우려하는 바대로 학교외부에 알려지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기본적인 위상이 떨어졌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각 주체들이 모인 이 자리니까 각각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교수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자리에 가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고, 직원 선생님은 직원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우리 학교의 발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 지적도 나올 것이고 대안제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평의원회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간사 김근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에 대해 다 알고계신데, 의장님 말씀하신 결의사항을 기록에는 다 남기되 그것을 법인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대학평의회 기능 중 어떤 것에 부합되는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평의원 오동석 : 심의와 별개로 대학평의회라는 조직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거니까 법에 근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능사항하고 연결하여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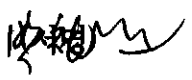





간사 김근태 : 그래도 법인에 전달을 하게 될 때 법인에서 대학평의회 기능 중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하고 할 수도 있을거라...

박영무의장 : 어떠한 총장을 선출하는냐는 학교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학교의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건의안 작성하는 것은 제가 위임받은 대로, 평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대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차 대학평의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10년 2월 1일

의 장	박 영 무	(서명)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서명)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오 동 석	(서명)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임 재 수	(서명) 
평의원	김 용 호	(서명) 
평의원	임 원 형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관 균	(서명) 
평의원	박 윤 규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 록	진 성 호	(서명)

< 간서명 란 >

의 장